

스미스앤드네퓨, ‘세계창상치유학회연합 학술대회’(WUWHS)서 첨단 창상 관리 대한 교육 지원 확대

글로벌 의료 기술 기업인 스미스앤드네퓨(Smith & Nephew)(런던증권거래소: SN)(뉴욕증권거래소: SNN)가 2016 년 9 월 25~29 일 이탈리아 플로렌스에서 열리는 ‘세계창상치유학회연합 학술대회’(World Union of Wound Health Societies, 약칭 WUWHS)에서 3 건의 심포지엄을 후원한다. 이들 심포지엄은 임상 시험 분야의 효과적인 실행과 소통을 통해 헬스케어 전문가를 지원함으로써 환자 예후를 개선하려는 회사 차원의 노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1 차 심포지엄은 독보적인 1 회용 진공음압장치(sNPWT) ‘피코’(PICO™)와 수술실의 복잡함을 줄여주는 피코의 효과에 초점을 맞춘다. ‘피코’는 풍부한 임상 근거를 바탕으로 합병증의 위험이 있는 광범위한 상처 치료를 의학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촉진하는 효과에 힘입어 단기간에 주요 NPWT 제품으로 부상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피코’ 사용이 표피의 수술 합병증을 4 분의 1(8%에서 2%)로 감소시켰으며 환자 1 인당 총 드레싱 교체 횟수도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1]

미국 클리블랜드 클리닉 성형외과의 리살 조안(Dr Risal Djohan) 박사는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는 합병증의 위험요소가 있고 예상보다 비교적 높은 감염이 발생하며 이는 사회적, 의료적, 나아가 경제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WUWHS 에서 발표될 임상적 근거는 피코가 대부분의 상처에 대한 치료 패러다임을 효과적으로 개선해 환자 예후 개선에 기여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추가로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미스앤드네퓨의 2 차 심포지엄에서는 10 명의 글로벌 과학/의학 전문가 패널이 상처 치유를 지연시키는 생물막에 대한 이해 제고를 촉구하고 그에 따른 도전을 강조한 보다 진전된 합의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3 차 심포지엄 ‘욕창 예방: 제로화 추진’(Pressure Ulcer Prevention: Driving to Zero)에서는 선도적 전문가들이 병원에서 발생하는 욕창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최우선 프로그램을 논의할 계획이다.

니즈 이슬람(Dr. Niz Islam) 과학/의학 부문 부사장(박사)은 “스미스앤드네퓨는 첨단 창상 관리 분야 데이터와 새로운 치료법을 공유하는 중요 모임을 후원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NPWT, 욕창 예방 프로토콜, 생체막 관련 컨센서스 전문가 패널 등 관련 커뮤니티가 주목하는 3개 분야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에서 창상 전문가들이 임상 관련 데이터를 발표할 계획”이라며 “이 같은 근거와 또다른 새로운 임상 근거를 통해 환자 치료 결과는 물론 헬스케어 전문가와 헬스케어 시스템의 성과를 높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스미스앤드네퓨는 WUWHS의 다이아몬드 스폰서다.

스미스앤드네퓨 WUWHS 심포지엄

심포지엄	일시 / 장소	발표자
욕창 예방: 제로화 추진	2016년 9월 27일 오후 12:15 – 13:15 브루넬레스키 홀	M 콜리에(M. Collier, 영국), M. 새먼(M. Sammon, 미국), J 프루멘티(J. Frument, 미국)
수술 절개부위 관리: 1회용 NPWT (PICO™)로 수술 창상 합병증 예방	2016년 9월 28일 오후 12:15 – 13:45 미켈란젤로 홀	M 서그루(M. Sugrue, 아일랜드), R 조안(R. Djohan, 미국), N 힐디그(N. Hyldig, 덴마크), S 네어(S. Nair, 미국)
창상 생물막 컨센서스(Wound Biofilm Consensus): 전문가 권고	2016년 9월 29일 오전 8:30 – 9:30 도나텔로 홀	G 숄츠(G. Schultz, 미국), T 비야른숄트(T. Bjarnsholt, 덴마크), R 월콧(R. Wolcott, 미국)

스미스앤드네퓨(Smith & Nephew) 개요

스미스앤드네퓨(Smith & Nephew)는 글로벌 의료기술 기업으로 헬스케어 전문가들이 인류의 삶을 증진하는 데 노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형외과 재건술([Orthopaedic Reconstruction](#)), 첨단 창상관리([Advanced Wound Management](#)), 스포츠 의학([Sports Medicine](#)), 외상/사지([Trauma & Extremities](#)) 부문에서 선도적 위상을 자랑하는 스미스앤드네퓨는 약 1만 5000명의 직원과 더불어 세계

100 여 개국(a presence in more than 100 countries)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2015 년 연 매출 46 억 달러 이상을 기록한 스미스앤드네퓨는 FTSE100 지수 기업이다.
(런던증권거래소: SN, 뉴욕증권거래소: SNN)

스미스앤드네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www.smith-nephew.com), 트위터(@SmithNephewplc on Twitter), 페이스북(SmithNephewplc)에서 찾아볼 수 있다.

스미스앤드네퓨가 'WUWHS 2016'에서 진행할 활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http://www.smith-nephew.com/wuwhs2016/>)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래예측 진술

이 자료는 옳거나 틀린 것으로 판명될 수 있는 미래예측 진술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매출 성장 예상과 마진 목표, 시장 동향, 제품 파이프라인과 관련된 진술은 미래예측 진술이다. '끼하다', '계획하다', '의도하다', '예상하다', '겨냥하다', '믿다', '추정하다', '기대하다', '노리다', '고려하다' 등의 문구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은 일반적으로 미래예측 진술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미래예측 진술은 알려진 위험과 미지의 리스크, 불확실성 및 실제 결과가 미래예측 진술 내용과 상당히 달라지도록 할 수 있는 기타 중요 요소를 수반한다. 스미스앤드네퓨의 경우 이 같은 요소로는 △서비스 제공 시장의 경제/금융 여건, 특히 헬스케어 제공자/보험사/고객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 △기존 및 혁신 의료기기 가격 수준 △의료 기술 개발 △규제 당국 승인 △보험 수가 결정 또는 기타 정부 조치 △제품 결함 또는 리콜 또는 기타 품질 관리 시스템 관련 문제 또는 관련 규제 위반 △특허나 그 밖의 클레임 관련 소송 △법적 준수 위험과 관련 조사, 치료 또는 적용 조치 △자사 공급사슬 또는 조직, 납품업체 공급망 또는 조직 분열 △인재 경쟁 △인수 및 매각, 성공적 실사 수행, 인수 기업 가치 평가 및 통합을 포함한 전략적 조치 △기업 인수나 시장 변화를 수용하기 위한 기타 사업 계획 또는 조직 변경으로 인한 혼란 △정치, 경제, 사업, 경쟁, 평판 등 회사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다수 사안을 들 수 있다. 이 같은 위험 요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스미스앤드네퓨의 최신 연차 보고서(20-F 양식) 등 회사 측이 1934 년 미국 증권거래법(수정내용 포함)에 따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각종 자료를 참조하기 바란다. 미래예측 진술은 모두 자료 작성일 현재 스미스앤드네퓨의 가용

정보에 기반한 것이다. 스미스앤드네퓨의 모든 서면상 또는 구두상 미래예측 진술은 이 주의 사항의 적용을 받는다. 스미스앤드네퓨는 상황 변화나 회사 측의 기대를 반영해 미래예측 진술을 업데이트 또는 수정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

Smith & Nephew 의 상표다. 특정 상표는 미국 특허청(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에 등록돼 있다

참고문헌

[1] Karlakki, S. et al. (2016). Incisional negative pressure wound dressings (NPWTd) in routine primary hip and knee replacements – A randomised controlled trial. Bone and Joint Research

비즈니스 와이어(businesswire.com) 원문 보기: <http://www.businesswire.com/cgi-bin/mmg.cgi?eid=51423135&lang=en>

[이 보도자료는 해당 기업에서 원하는 언어로 작성한 원문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그러므로 번역문의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원문 대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처음 작성된 원문만이 공식적인 효력을 갖는 발표로 인정되며 모든 법적 책임은 원문에 한해 유효하다.]

언론문의처

스미스앤드네퓨(Smith & Nephew)

마다노(Madano)

칼리 우라(Karley Ura)

+44 (0) 20 3595 2415

재클린 콘팔로니(Jaclyn Confalone)

+44 (0) 20 3595 2441